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7년 9월)

일	시	2017. 9. 28. 목. 오후 5시	장 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영기, 김형주, 이영숙, 임훈, 조경선, 최선희, 최양호, 형지영(총 8명)		
	회사	이강세 사장, 김규석 경영기획국장,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취재부장, 조현성 기획심의부장		

## ■ 회의 내용

- 조현성 기획심의부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는 14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됐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참석이 어려워 오늘 진행은 조경선 위원께서 맡아주시겠다.
- 조경선 위원: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 진행이 서툴더라도 많은 양해 바란다. 먼저 이강세 대표 이사님의 인사말을 들겠다.
- 이강세 사장: -노동조합이 이번 달부터 파업 중이다. 지역 대표 공영사로서 여러모로 어려운 거건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업 상황 속에서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방송 파행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노력중이다. 지역의 시청자들이 우호적이고 따뜻한 시선 거두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위원님들께도 계속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 조경선 위원 : -다음은 간부들의 업무 보고를 들겠다.
-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 -최근 있었던 직제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편성기획부를 신설한 것을 말씀드린다. 기존의 편성제작부가 확대 개편돼 편성기획부와 방송제작부가 되었다. 아울러 제작지원부의 명칭을 영상제작부로 바꾸었다. 이달 4일부터 파업이 시작됐는데 <생방송 빛날>의 경우 첫째주까지 그대로 제작해 송출했다. <난장>과 <아트아시아>, <별첨춘>의 경우 스페셜로 편성했고, <천년의 전라도>, <시청자 TV>는 계속 제작하고 있다. 라디오는 윤행석 부장이 제작을 맡아 <투데이 광주>와 <라디오 칼럼> 등은 정상적으로 제작중이다. <시선집중 광주> 등은 서울 릴레이하고 있다. 특징은 <가요베스트>는 파업 전이어서 제작을 했고, 정율성 동요제도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향후 정규방송은 파행이 불가피한데, 외부와 계약한 부분은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겠다. <빛고을 나눔장터>와 <김정호 가요제>, 충장축제 축하쇼는 행사만 진행하고 생방송은 힘들 듯하다. 라디오 공개방송은 장성과 담양 가라수 음악회 등은 정상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상황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파업 이후 최대한 손실 없이 업무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
- 한신구 취재부장 : -뉴스데스크의 경우 평일 5분에서 7분 정도 내보내고 있다. 주말과 휴일 뉴스는 결방하고 있다. 파업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보도국장과 취재부장, 영상취재 부장과 두 명의 비조합원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날 그 날 있는 행사 위주로 뉴스를 다루고 있다. 뉴스투데이와 이브닝뉴스, 930 뉴스는 못나고 있는데 기술쪽의 업무가 너무 많아 파행이 빚어지고 있음을 양해 해달라. 명절연휴 때 서울에서 뉴스를 대폭 단축해 방송할 예정이고 우리로서는 연휴기간 내내 결방될 예정이다. 창사특집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토론 참석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논의 결과 창사특집토론을 연기하고 파업 이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파업 이후에는 일상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파업 기간이지만 구성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다 나은 뉴스를 제작하기위한 고민의 시간으로 끌어가고 있다
- 김규석 경영기획국장 :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UHD 사업자 의견청취가 있었다. 광주

문화방송은 12월 본방송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평가위원들은 투자와 자체제작을 늘려달라고 권고했다. 마침 오늘 UHD 사업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

- 조경선 위원 : -파업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다. 늦었지만 이달의 피디상 수상을 축하한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다.
- 김영기 위원 : -광주MBC 구성원 여러분에게 응원과 박수의 메시지를 보낸다. MBC 노동조합의 파업에 응원을 보낸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난날의 저력을 모범적으로 청산하는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란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제작능력을 보여준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달의 방송기자상, 5.18연탄상, 이달의 PD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제작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서 5.18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인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 임훈 위원 : -업무상 지상파 생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본다. 하루 2, 3시간은 꼭히 보는 것 같다. 트렌드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 MBC 뉴스도 유튜브로 본다. 실시간으로 안 봐도 되니까 큰 변화인 것 같다.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더 많이 집어넣도록 노력해 달라. 세계수영대회 소식이라든지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콘텐츠에 영어 자막을 입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시청률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고시장도 크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수익 창출원도 될 수 있다고 보인다.
- 조경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다. <라디오 칼럼>은 방송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 듣기에 어색하다는 지적을 일전에 했는데 최근에는 칼럼리스트들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하더라. 시청자위원의 의견이 현장에서 곧바로 반영이 된다는 생각에 반가웠다. 홈페이지 내에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에 애려가 많이 있다. 칼럼 시간에 음악이 나오더라. 점검을 해 달라. <천년의 전라도>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옥의 티는 BGM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편의 결론을 BGM을 배경으로 Text로 나타내었는데, 풍성한 내용에 비해 결론이 좀 무성의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결론을 신뢰감 있는 아나운서의 멘트로 처리한다면, 각 편의 결론이 훨씬 더 편안하게 전달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부분의 풍부한 내용이 뒷부분에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뉴스시간에 <다시 5.18> 기획보도가 나오더라. 서울에서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업 이후를 기대해보겠다
- 최선희 위원 : -파업 장기화 종이라 보도쪽에서 데미지가 큰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데 KBS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은 것 같더라. JTBC 등 종편 채널의 상대적 선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MBC의 스테이션 이미지가 너무 망가지는 것 같다. 대안으로 MBC 퇴직 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 교통방송의 통신원 제도 정도를 참고할 수 있다. <아트아시아>를 즐겨본다. 장소 선정이나 진행 방식 등이 매우 자연스럽다. 다만 일부 여성 패널의 경우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할 때가 많아 민망했다. 파업 중임에도 재방송 보는 것이 즐거울 정도로 방송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 최양호 위원 : -<MBC토론 갈수록박>의 "지방분권계획,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시청하면서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방송토론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종종 패널로도 참여한 적이 있는 나로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지역 토론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방송을 송신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라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지만, 지역 토론프로그램에서 지역민들에게 시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을까? 첫째, 타 지역방송사 토론 프로그램과 '주제'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지역 토론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제작 여건상 힘들 수 있지만, '딱딱한 주제'를 놓고 정치인, 교수, 전문가 집단이 출연해서 '딱딱한'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지역생활 밀착형" 주제를 놓고 직접 관련 있는 지역민들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둘째, '포맷'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진행자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보다는 패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포맷을 고민해야한다. 예컨대, 광주 지역과 비슷한 인구의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로컬 방송을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포맷 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행자와 관련하여 방송 개편 때 마다 교체하기 보다는 '손석희 앵커'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송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의사인간관계 (parasocial interaction)"를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선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김형주 위원 : -항상 국화가 피기 시작하면 창사 기념 주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관 들어오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어둡더라. 파업 정국을 끝내고 난 뒤에는 보다 활기차고 광주MBC의 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이영숙 위원 : -파업과 관련해 시민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종종 시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좋은 기회라면 좋은 기회만큼 잘 활용해 달라. 벌써 파업 25일째를 맞고 있는데 경쟁 매체들의 프로그램 퀄리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안타깝다. 광주MBC가 보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송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하루라도 빨리 파업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린다.
- 형지영 위원 : -오늘 오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참석을 했다. 파업 상황이 안타깝지만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시선집중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전국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지역의 이슈를 소개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이따금 침례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 한쪽의 목소리만을 전해 듣는 경우가 있다. 후속적으로 다른 의견을 전해주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행여나 편파성을 의심받아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일별 주제별로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잘 듣고 있다. 특히 우리 고향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코너는 듣는 것만으로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무척 재미가 있다.
-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 -유튜브에 대해서 임훈 위원님이 의견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현성 부장이 답을 하는 게 더 나을 듯하다.
- 조현성 기획심의부장 : -저희가 뉴미디어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뉴미디어 관련해 연간 3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엄밀히 말해 광고 원으로서 매력은 사실 없다. 하지만 뉴미디어라는 거대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고 플랫폼으로서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최근 2, 3년 사이 유튜브 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큰 대세로 떠올라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 어찌됐든 임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광주MBC 유튜브 채널의 카테고리가 수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 조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홈페이지 라디오 콘텐츠의 오류는 사실 관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 -<천년의 전라도> 관련해서 조경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캠페인의 경우 대개 장엄하고 진지한 경향을 띤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천년의 역사'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섬세한 부분을 놓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패널의 의상 문제나 너무 가벼운 대화 내용 등은 개선해가겠다. <아트아시아>의 경우 문화전당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광주 전체로 소재를 넓히는 쪽으로 제작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 형지영 위원님은 <시선집중 광주>의 편파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 제작진들도 그 같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방송을 같은 날 내보내지 못하면 다른 날이라도 꼭 반론권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린다.
- 한신구 취재부장 : -많은 시청자위원들께서 파업 상황에 대해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나타내주셨다. 파업 당사자들도 많이 아파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성원들은 이 시간을 내적인 성장기로 생각하고 있다. 파업이 끝나면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강세 사장 : -김형주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이 시기는 '창사 특집'으로 매우 활기에 넘쳐할 때인

데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구성원들이 이번 파업 기간을 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트아시아>나 <별칭춘>, 뉴스 프로그램 등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개선을 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성원들이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자고 노조에 제안을 했었다. 곧 추석 연휴인데 파업이 좀 더 갈 것 같다. 각 분야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점검을 하고 새로운 각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볼 생각이다. 파업 과정 중에 사원들간 감정들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 조경선 위원 : -이것으로 2017년 9월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끝.